

특집

# 독자 69%,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 신뢰받고 읽히는 매체 만들겠다

대학주보 혁신선언 중간점검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우리신문은 제1585호(2015.03.02)를 통해 ‘장간60주년을 맞아 100년의 틀을 새로 만들기 위한’ 혁신을 선언한 바 있다. 그 방법으로 ▲디지털뉴스부문 강화 ▲대학주보 종이신문 발행주기 격주간 조정 ▲대학주보 매거진, 매거북 발행이라는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매체의 주인은 결국 ‘독자’다. 독자들은 이런 변화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우리신문이 진행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 변화의 방향을 짚어봤다.

우리신문은 디지털뉴스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이메일 뉴스레터 주3회 발행, 소셜미디어(SNS) 강화, 콘텐츠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CMS강화를 세부안으로 제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이런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주보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우리학교 구성원 387명에게 진행한 ‘대학주보 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학교 구성원은 대학주보를 종이신문보다 인터넷으로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387명 중 65.9%(255명)가 ‘데스크탑 혹은 노트북 PC를 통한 인터넷 대학주보’와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를 통한 인터넷 대학주보’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에서 주목할 점은 대학주보의 디지털뉴스부문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일 이후 대학주보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273명 중 대학주보가 발송하는 이메일 뉴스레터 또는 대학주보가 운영하는 SNS 계정을 통해 기사를 접했다고 답한 비율은 94.5%(259명)에 달했다. 또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학주보를 이용하기를 원하는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387명 중 과반수가 넘는 79.6%(308명)가 ‘온라인 매체’라고 답했다. 2013년에 동일한 질문지로 진행됐던 설문조사에서 ‘대학주보를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종이신문’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32.6%였고 이메일 뉴스레터 또는 SNS를 통해 기사를 접한다고 답한 비율은 21.3%이었던



우리신문은 ‘늘 당신의 옆에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SNS 매체를 확대했다

다. 이번 설문 결과와 비교해보면 디지털뉴스부문에 대한 구성원의 수요가 대폭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학주보가 발행하는 이메일 뉴스레터에 대한 개선방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학주보 이메일 뉴스레터의 발송주기는 어느 정도인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과반수에 가까운 46.5%(180명)가 ‘주1회’에 답했기 때문이다. 독자들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뉴스레터의 주 3회 발행에 대해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현 제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해부터 대학주보가 ‘모바일 퍼스트’를 지향하면서 무게를 둔 SNS운영 역시 페이스북 단일에서 매체를 확대했다. 지난 4월부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15초’ 대학주보 영상과 캠퍼스 일상사진 등을 중심으로 볼거리를 제작하고 있다. 영상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정준(석사 3기)씨는 “뉴 미디어를 소비하고 구축해 나가는 데 매우 익숙한 20대를 주요 독자로 산정하고 있는 대학 신문이 ‘플랫폼의 다양화’로 신문의 활로를 고민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대학주보가 디지털뉴스부문의 강화를 위한 세부사항으로 제시한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강화’ 계획은 최근 뉴욕타임즈, 버즈피드 등의 언론사들이 트래픽 감소에 대한 대응

책으로 CMS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경향에 따른 것이다. 어떤 기사가 독자들의 흥미를 끄는지와 같은 경험성을 파악하기 쉽고 기사 편집자 입장에서도 간편하게 편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대학주보의 현재 CMS는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해오기는 했지만 최신 독자 추세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모바일 퍼스트’를 지향하는 대학주보도 올 해 안에 신규 CMS를 개발해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대학주보는 기존에 한 달에 한 번씩 발행되던 매거진을 폐간하고 단일 주제를 대상으로 심도있는 기획 기사를 실을 ‘매거북’을 미래리포트, 도서관, 지역, 대학주보 편집일지 등의 소재를 토대로 준비하고 있다. 대학주보 백승철 편집장은 “매거북은 지면 사정상 본지에 실지 못했던 아이템을 중심으로 독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라며 “한 가지 아이템에 대해 더 심도 있고 깊은 취재를 통해 좀 더 수준 높은 기사를 쓸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학주보는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9.2%(152명)로부터 선택돼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뽑혔다. 반면에 대학주보 기사를 3월 1일 이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답 역시 29.2%(113명)였다. 더 신뢰받고, 더 많이 읽히는 신문을 향한 고민을 이어가겠다.

## 대학주보 60년, 혁신의 역사를



1955  
5월 12일  
신흥대학보 창간



1960  
3월 1일  
'경희 대학주보'로 개칭,  
같은해 6월 30일  
'대학주보'로 변경

1984

4월 2일  
지령800호,  
전면 가로쓰기  
적용



1992

5월 11일  
지령 1000호 발행



2007

3월 5일  
제1378호 베를리너판형으로 변경



2011

1월 5일  
대학주보 매거진  
제1호 발행



2015

2015년 5월 12일  
창간 60주년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는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